

권 두 언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래밍언어 분과연구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게 된 최광무입니다.

저희 프로그래밍언어 분과연구회가 설립된지도 어언 9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10 여분의 교수님들과 함께 의욕만으로 시작했던 그때와, 50여분의 운영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열심히 학술활동을 벌리고 있는 지금을 비교하면 우리 분과연구회의 커다란 발전을 느끼게됩니다.

현재 우리 분과연구회의 많은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을 형성하여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을 모아서 프로그래밍언어 분과연구회 전체의 발전으로 결집하려는 노력은 조금 미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 개인의 활발한 연구를 분과연구회 전체의 활동으로 결집시키는 데에 미력하나마 저의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소규모의 활동들이 분과연구회 전체의 활동으로 모여지게 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더욱 많은 분들이 더욱 높은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회원 모두의 발전이 분과연구회의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키면 이는 참여 회원 숫자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회비를 내시는 회원수의 증가는 수입의 증가로 연결되어 재정의 자립 도를 키워서, 활발한 학술활동의 증진을 도와준은 물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이해증진을 이루어 활발히 활동하는 분과연구회를 만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현재 활발히 진행중인 연구 소그룹 내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를 워크숍이나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널리 제공하여 회원 상호 간의 토론 문화를 증진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학술활동 활성화의 결과를 분과연구회 소식지나 web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또한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발표된 좋은 연구결과들이 학회논문지에 게재되도록 적극 권장하여 프로그래밍언어 분야의 발표논문의 수와 질을 높여서, 정보과학회 본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학술지의 발간에 우리 분과연구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요사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 web을 활성화하여 가상공간에서의 토론과 정보교환의 신속화도 도모하려고 합니다. 또한 세계의 학자들과의 교류도 적극 추진하여,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연변의 한민족 등 동북 아시아 권은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의 학자와의 교류로 확대시켜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의 수준의 향상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과연구회의 운영의 기본은 회원 여러분의 개인적인 발전과 이를 바탕으로 한 회원 전체의 공동발전 추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8년 6월

프로그래밍언어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광무